



코스피 2680.46 (-6.99)	코스닥 907.57 (+5.75)
금리 (연평균) 3.139 (+0.053)	환율 (원/달러) 1267.80 (+2.70) (3일)



[뉴스]  
온라인·명품의존  
유통가  
아이 이벤트 활기  
02

창간 20년  
since 2002

# “상식 기반, 민간 주도 경제성장… 5년간 209조 투입”

##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직인수위원회가 3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맞춰 설정된 주요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임기 5년간 실천하는 것으로, 핵심은 ‘상식 회복,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6대 추진 방향에는 주요 실천 과제 20개 약속과 110개 국정 과제, 521개 실천 과제를 담아낸 것이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목표에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된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지향성, 한국이 재도약하는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잡기 핵심전략 산업 육성 경제 재도약 필요한 국민에 더 두터운 지원 등 6대 추진방향 주요 실천 과제 담아

인수위가 밝힌 국정과제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먼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추진 방향에는 ▲상식·공정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 잡기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등의 국민에게 하는 약속 세 가지가 담겼다. 여기에 국정과제 15개가 포함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추진 방향에는 ▲경제 체질 선진화를 통한 혁신 성장 디딤돌 마련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 견인 ▲경제 중심에 중소기업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에 서는 나라 ▲혁신 금융시스템 마련 ▲하늘·땅·바다 잇는 성장 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가지 약속과 26개 국정 과제가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추진 방향에는 ▲필요한 국민에 더 두터운 지원 ▲노동 가치 존중 사회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 ▲국민 안전·건강 최우선 관리 ▲살고 싶은 농산 어촌 등 다섯 가지 약속과 32개 국정 과제를 담았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추진 방향에는 ▲과학기술 선도 도약 발판 ▲창의적 교육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 사다리 구축 등 네 가지 약속을 담았다. 여기에는 19개 국정 과제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추진 방향에는 ▲남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의 한반도 구축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및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국 육성 및 보훈 강화 등 국민에게 하는 세 가지 약속과 18개의 국정 과제가 담겼다.

한편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 과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달성하기 위해 총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 300조원, 인건비 100조원, 나머지 200조원은 어느 정도 용도 변경 가능하다”며 “이 가운데 10%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20조원, 나라 경제 발전으로 최소 1년에 세수 20조원 정도 조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DSR 규제 유지… 사회초년생, 내 집 ‘그림의 떡’

‘생애 첫 주택’ LTV 80% 허용 DSR 규제에 완화 실효성 의문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한도가 적어지는 탓에 DSR 규제는 사회초년생에게 불리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V) 상한을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LTV를 완화해 청년층 등의 내 집 마련 실현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 LTV는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다만 DSR 완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DSR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전 서면 답변을 통해 “기존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이 넘는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DSR 40% 규

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것.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DSR 규제가 유지됨에 따라 대출규제 완화 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나온다. DSR은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한 규제다. 소득이 적으면 LTV 완화 혜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0년 만기, 금리 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 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1억4500만원에 불과하다.

<2면에 계속>

/양희문 기자 yhm@



메트로미디어가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메트로 창간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손진영 기자 son@

## 메트로신문 ‘창간 20주년 기념식’ 성료

# 책임있는 언론,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다짐

경제계 인사·홍보인 220명 참석 뉴메트로 재도약 등 발자취 소개

메트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의 ‘창간 20주년 기념식’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포시즌스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L7·L8면>

메트로신문은 지난 2002년 창간 이래 20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 무료 배포신문을 발행해왔다. 이장규 대표이사가 지난 2015년 취임한 이후 ‘뉴메트로 선포’를 한 뒤 재도약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2018년엔 ‘메트로경제’를 발행하면서 세계 최초의 유·무료 신문 동시발행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날 메트로미디어 창간 20주년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부는 ‘메트로 20년, 길을 묻다’, 2부는 ‘음악이 주는 위로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1부 회사 소개 동영상에서는 무료 일간 신문에서 외연을 넓혀 유료 경제신문을 내고, 디지털·방송·SNS 부문을 강화해 AI뉴스 등을 창출하는 메트로미디어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세종시 주재기자과 국방 전문기자, 청와대 및 국회 출입기자, 베이징 주재기자, 50여 명의 지방 객원기자들을 더해 규모가 이전보다 대폭 커진 회사 현황도 소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최선목 한국광고주협회장과 이순우 메트로미디어 언론윤리실천위원장의 외빈 축사가 이어졌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앞으로의 비전에 관해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등과 연을 맺고 책임지는 언론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보이면서 시장 경제 관점과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2부 ‘음악이 주는 위로와 희망’에서는 오페라 ‘여자의 마음은 갈대’,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아리아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즉흥 색소폰 연주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메트로미디어 창간 20주년 기념식에는 220여 명의 산업, 금융, 유통 분야의 기업 관계자 및 홍보인,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해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격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③ 현대차그룹 <4·5면>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3대 종교 지도자, 인수위에 ‘사회통합’ 강조 /사진 뉴스시스  
▲ 김동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사면’ 추진

▲ 국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尹내각 두 번째  
▲ 민주당, 김인철 낙마 다음 타깃 정호영 정조준



▲ 이준석 “김인철 사퇴 판단 존중…민주당 무리한 공세에는 맞설 것” /사진 뉴스시스  
▲ 국회, 한화진 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尹내각 첫 사례